

대구주보

연중 제20주일
2020. 08. 16. (가해) 제2228호

“아, 여인아! 네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 네가 바라는 대로 될 것이다.” (마태 15,28)



「예수님과 가나안 여인」, 피터 라스트만, 1617년,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국립박물관

한반도 평화를 염원하며 하나 된 마음으로 매일 밤 9시 주모경을 바칩시다!

만인에게 열린 구원



죽전본당 주임 | 김종기 바오로 신부

오늘 제1독서는, 하느님은 출신 성분이나 특정 민족을 가리지 않고 당신의 계명에 충실하면 그 어떤 이방인도 성전에 모일 수 있다는 내용을 들려줍니다. 이것은 기원전 500년 언저리의 이야기인데, 그때 이미 구원은 유다인을 넘어서 이방인들에게까지도 열려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느님은 이스라엘만의 하느님이 아니시고, 이스라엘 백성만이 하느님의 백성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유다인들의 불충실과 배신으로 인해서 하느님의 구원 계획은 유다인을 넘어서 이방인에게까지도 확대됩니다. 이런 하느님의 구원 계획은 신약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최종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오늘 복음은 그 내용을 다시 말해줍니다.

오늘 복음에서 어떤 가나안 부인이 와서 예수님께 마귀 들린 자기 딸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청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이방인인 가나안 부인을 마치 개처럼 무시하며 거절하십니다. 하지만 그 가나안 부인은 예수님의 무시하는 말을 인정하며, “강아지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는 먹습니다.”라는 말로 예수님의 자비를 청합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은 부인에게 “네 믿음이 참으로 크구나!”라고 대견해하시며 그의 딸을 고쳐주십니다.

티로와 시돈은 가파르나움에서 서북쪽으로 약 50 km 떨어진 해안에 있는 이방인 지역으로 우상숭배가 심했던 곳인데, 예수님께서 왜 그곳으로 가셨는지는 설명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유다인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모습과는 달리 오늘

복음에 등장하는 그곳의 이방인 여자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고 자신의 간절한 구원을 청했습니다. 그 여인의 태도는 ‘개’라고까지 천시받는 모욕을 참고 끈질기게 예수님께 매달리는 대단한 믿음이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아이러니이며, 그 믿음으로 그 부인은 소원을 이루게 됩니다.

유다인들은 자신들만이 하느님의 선택받은 백성으로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고 자만하면서도,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는 데는 충실하지 못하였고 하느님을 배신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복음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은 유대인이 아니었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었습니다. 그 믿음이 하느님의 백성이요 자녀가 되는 유일한 조건이라는 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메시지임을 우리는 알아들어야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 유다인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구원은 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믿고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믿고 그분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총인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은 유대인이라 해서, 세례 받은 천주교 신자라 해서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은총이 아닙니다. 구원은 하느님을 믿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하느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잘 따르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총입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의 말씀을 잘 실천함으로써 구원의 은총을 얻는 하느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아가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

차곡차곡 하세요~

- 선행 작업 : 체계적 노력, 목표

교구 소람상담소장 | 김종섭 토마스 신부

‘어떻게 오셨어요? 어떤 부분을 나누고 싶으신가요?’

‘신부님~ 저는 행복하고 싶어요. 그래서 제 인생이 변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호소 내용을 말씀하시는 분들을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죄송하지만, 행복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고 평생 추구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의 능력 밖의 일이라고 말씀드립니다. 대신, 행복해지고 싶다는 것은 ‘지금 행복하지 않다. 지금 불행하다.’라는 이야기니까 ‘어떨 때 행복함을 느끼는지?’ 혹은 반대로 ‘지금 불행함을 느끼게 하는 상황 / 사건은 무엇인지?’ 함께 찾아보자고 제안합니다. 행복의 조건이 되는 목록이 생기면 그 가운데 우리가 함께 성취할 수 있는 것을 상담의 목표로 잡을 수 있겠고, 또 불행 목록이 생기면 그것들을 소거해 가는 상담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 행동은 본능과 욕구만이 아니라 목표나 의도, 동기에도 영향을 받습니다. 따라서 하나의 행위, 행복하겠다는 것은 본능과 욕구 차원에서 ‘그리고 싶다. 행복하게 살고 싶다.’라는 바람이 아니라 체계적인 노력이 필요한 성취 가능한 목표여야 합니다. 막연하게 ‘~ 싶다. ~ 되면 좋겠네. ~ 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으로는 사실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이미 많은 분야에서 사용하는 개념이며 상담에서도 자주 사용하는 목표 설정 방법 하나를 소개합니다. 소위 스마트(SMART) 목표 설정입니다. 다섯 가지 핵심단어의 첫 글자를 따서 SMART로 부릅니다. ① 구체적이고(Specific) ② 측정 가능하며(Measurable) ③ 성취가 가능하고(Achievable / 실천적이며 Activity) ④ 연관성이 있고(Relevant / 현실적이며 Reality) ⑤ 정해진 시간 내에(Time-sensitive) 목표를 설정하는 방법입니다. 가령, 다이어트를 한다는 사람이 있습니다. 막연하게 살을 빼야지... 운동해야 되는데... 이런 욕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유로 뺄 것(건강, 미용)이며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진행할 것인가? 그리고 측정할 도구는 줄자, 체중계, 체지방이나 근육량 측정으로 할 것인가? 지금 몸무게가 90kg인데 이번 여름에 65kg까지 줄이겠다는 목표라면 이루기 힘듭니다. 그리고 구체적 실천들이 얼마나 나의 목표 설정에 연관성이 있으며 현실적인가를 고려합니다. 마지막으로 운동은 평생, 다이어트는 평생 하는 것이라는 생각은 목표 달성의 결과물을 획득할 수 없어서 동기 부여가 약해집니다.

신앙생활도 유사합니다. 명확한 목표 설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막연하게 그냥 성당을 다닌다면 신앙생활의 유익과 흥미를 갖기 힘듭니다. **필드**

주님의 손길

교구 경찰사목부장 | 조재근 마르코 신부

대구에 신천지 신도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폭발적으로 증가할 때였습니다. 베테랑 형사 형제님께 한 통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업무 특성상 저희 관내 신천지 교인들 소재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두려움에 빠지지 않고 용기 잃지 않고 지역사회와 가족에게 헌신과 봉사할 수 있게 신부님, 기도해 주십시오.”

연락이 잘 닿지 않는 대구 신천지 신도를 찾기 위해 600여 명의 경찰관이 동원되었습니다. 이름과 주소지가 적힌 종이 한 장 손에 쥐고 감염의 두려움을 무릅쓴 채 자취를 감춘 사람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이렇듯 우리 사회의 굵은일에는 경찰관이 함께합니다. 강력 범죄 현장에도, 끔찍한 교통사고 현장에도 늘 경찰관이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경찰관은 직업적 특성상 정신적인 트라우마에 많이 노출됩니다. 범죄 사건을 자주 접하고 듣다 보니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조차 쉽게 믿지 못하고, 정신마저 피폐해지는 것 같다고 호소합니다.

대구지방경찰청 별관에는 자그마하고 아름다운 경당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곳을 찾는 경찰 교우 형제자매들이 하느님 안에서 쉬고 기도하며 위안을 얻고 영적으로 치유의 은총도 선물로 받기를 기도합니다.

오랫동안 형사생활을 해온 어느 경찰관의 이야기입니다. 제게 문자로 기도를 청했던 바로 그 형제님

입니다. 그는 어느 날 문득 거칠어진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흉악 범죄 사건을 많이 다루며 형사로서의 경력이 쌓이는 동안 정신적으로는 거칠어지고 황폐화 되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거칠어진 성격과 스트레스를 쏟아버리는 자신을 발견하고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곧장 예비신자 교리반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천주교를 선택한 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했는데, 요약하면 천주교 신자들의 삶의 모습 때문이었습니다. 형사로 근무하면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 중에 천주교 신자들에 대한 좋은 기억들 때문이지요. 여러 목사님과 스님의 손목에는 수갑을 채워봤지만 아직 신부님 손목에는 수갑을 채워보지 못했다는 형제님의 우스갯소리에는 천주교에 대한 신뢰가 묻어났습니다. 밝고 편안한 형제님의 모습에서 주님의 치유의 손길이 미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신앙인들은 하느님께 기도하며 주님 말씀에서 위안을 얻고 살아갈 용기와 힘을 얻습니다. 아이로의 죽은 딸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신 예수님은 우리의 손도 잡아 주십니다. 주님께 큰 위안을 얻고 육신과 영혼의 치유를 받은 사람은 이웃에게 또 다른 예수님의 손길이 되어 줄 수 있습니다. 주님의 치유의 손길에 나의 이 두 손도 보탬이 된다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필문**



이도기 바오로 (1743~1798년)

1743년 충청도 청양에서 태어난 이도기(李道起) 바오로는 고향에서 천주교 신앙을 받아들여 입교하였다. 본래 그는 글을 알지 못하였지만, 하느님의 사랑과 천주교의 덕행만은 잘 이해하고 있었다. 이후 바오로는 얼마 안 되는 재산을 모두 비신자들을 입교시키는 데 사용하였다. 또 천주교 신앙 때문에 여러 가지로 위협을 받게 되자 이곳저곳으로 피해 다니며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는 데 노력하였다. 그러다가 가족과 함께 청양을 떠나 산너머에 있는 정산으로 이주한 뒤, 그곳 옹기점에 터전을 잡았다.

1797년, 바오로의 나이 54세가 되었을 때 정사박해가 발생하였다. 그때 이 소식을 들은 인근의 한 비신자가 와서 ‘천주교인들의 두목으로 고발하겠다.’고 그를 위협하였다. 이에 겁이 난 그의 아내가 도망할 것을 권하였지만, 그는 하느님의 뜻을 어기는 일을 하려 하지 않았고, 신임 교우들이 자신의 행동에 걸려 넘어질 것을 염려하여 이를 거절하였다.

그 해 6월 8일, 한 떼의 포졸들이 나타나 그를 체포하였고 정산 관아로 끌고 갔다. 바오로는 자주 관장 앞으로 끌려 나가 문초와 형벌을 받아야만 하였다. 그러나 그는 결코 굴복하지 않았으며, 배교를 강요하는 관장 앞에서 용감하게 천주교 교리를 설명하곤 하였다.

굶주림과 혹독한 추위로 고통받는 가운데서도 그는 앉아 있거나 누워 있거나 끊임없이 천주를 생각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라는 천사의 말씀을 전해 주는 목소리를 듣고는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하루는 관장이 벼슬을 주겠다고 회유하자, 그는 “정산 고을을 전부 주신다 해도 천주를 배반하지 못하겠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1798년 6월 10일 아침, 포졸들이 와서 사형 집행일이 되었다고 알려 주자, 바오로는 기쁨을 감출 수 없었다. 정산 형장으로 끌려간 바오로는 그곳에서 다시 혹독한 형벌을 받게 되었지만 그는 결코 배교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머리를 쳐들고 하늘을 우러러보며 “성모 마리아여, 당신에게 하례하나이다.”라고 외쳤다.

바오로는 여러 차례 실신하였고, 다리가 부러질 때까지 매를 맞고 버려졌다. 이틀 후 저녁 무렵, 관장은 그가 ‘죽지 않았으면 아주 죽여 버리고 오라.’고 명령하였다. 포졸들은 이 명령에 따라 그의 몸을 잔인하게 짓이겨버렸다.

그때가 1798년 7월 24일(음력 6월 12일)로, 순교 당시 그의 나이는 55세였다. 이후 그의 시신은 관장의 명에 따라 묻혔는데, 7~8일 후 정산에서 조금 떨어져 사는 교우들이 그 시신을 비밀리에 찾아다가 그들의 마을에 안장하였다.

출처 :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 홈페이지

오늘의 전례

제 1 독 서	이사 56,1,6-7	제 2 독 서	로마 11,13-15,29-32	복 음	마태 15,21-28.
화 답 송	◎ 하느님, 모든 민족들이 당신을 찬송하게 하소서.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예수님은 하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고 백성 가운데 병자들을 모두 고쳐 주셨네. ◎ 알렐루야.				
영 성 체 송	주님께는 자애가 있고 풍요로운 구원이 있네.				

교구장 동정

8. 15(토) | 소화성당 성모 승천 대축일 미사

대구가톨릭대학교 가톨릭신학원

2020년 2학기 성경 및 신학강좌 수강생 모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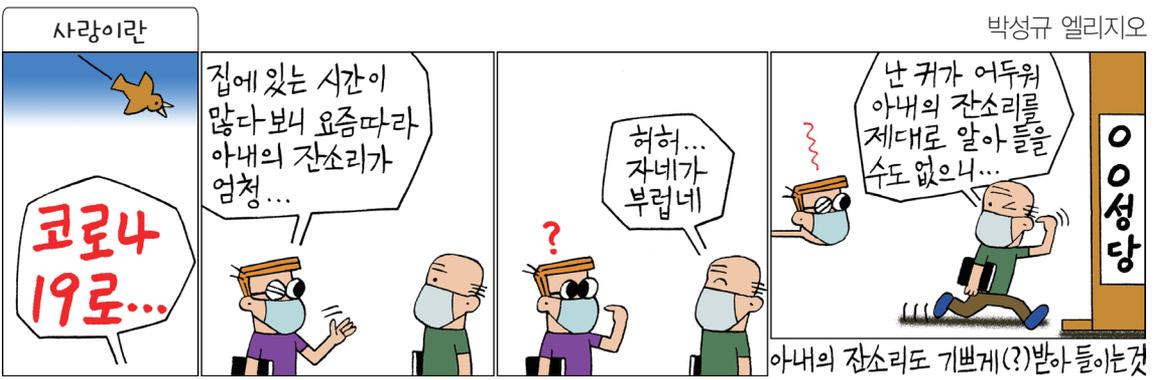
개 강 : 8.31(월) 각 강좌 요일별 개강 | 장 소 : 대구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남산동) 강의동 2층
수 강 료 : 과목당 70,000원(2과목 이상 신청시 과목당 60,000원) | 문 의 : 가톨릭신학원, 660-5105

시간	월	화	수	목	금
10:00 ~ 12:00		요한계문헌	철학과 그리스도교	철 학	신약성경입문
		동양고전	사도바오로		
14:00 ~ 16:00		신학 첫걸음	신 론	시편과 지혜문학	그리스도교와 불교의 만남
		마리아론		교회론	역사서
19:30 ~ 21:30	교회봉사자 양성과정	가톨릭교회 교리서해설	예언서	가톨릭서간	

교회봉사자 양성과정 개설

교회 내 제단체 봉사자들을 위한 성경과 신학 입문 강좌가 열립니다.

※ **DoU** KakaoTalk **플러스친구** 에서 “대구가톨릭대학교 가톨릭신학원”을 검색하세요.
※ 추후 코로나사태로 인하여 일정 변동 가능



미사 안내

포항지역 군중후원회 월례미사	8월 17일(월) 11:00 죽도성당	한티순교자 현양후원회 월례미사	8월 22일(토) 11:00 순례자성당
김천지역 밀알회 월례미사	8월 20일(목) 10:00 평화성당	-	-

군위군 · 경상북도 · 매일신문이 마련한

고(故) 김수환 추기경 추모 뮤지컬에 초대합니다



일시: 9.5(토) 1일 2회 공연 / (1회) 14:00 (2회) 17:00

장소: 군위 삼국유사교육문화회관 대공연장

문자 접수: 010-3362-5616 (예: ○○성당, 10인, 1회 공연)

관람료: 무료(사전접수 필수, 현장접수 불가) / 문의: 010-3362-5616

※ 이 공연은 '좌석 간 거리두기'로 진행됩니다.

9월 가나 강좌

일시: 9.13(일) 10:00 ~ 13:10 ※ 시간 엄수, 사전접수, 현장접수 불가

장소: 교육원 다동 대강당

대상: 혼인을 앞둔 미혼 남녀(예비 부부)

(접수 상황에 따라 신청 확정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신청: 본당 사무실 / 마감: 9.3(목) / 참가비: 2인 3만원

입금: 대구은행 504-10-131272-3 (재)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

문의: 교구 가정복음화국, 053)250-3077, 3114

※ 코로나19 생활수칙을 지켜주시고, 유증상자는 입장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빛 사랑 후원회원 모집

월간 <빛>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의 신앙생활에 도움을 주고자 <빛사랑> 후원회원을 모집합니다.

가입안내 및 특전

- ▶ 1인 1구좌 이상 가능, 1구좌당 매월 10,000원
- ▶ 후원회원을 위한 월 미사 봉헌.
- ▶ 연말 소득공제용 기부금 납입증명서 발급
- ▶ 문의 053)250-3158, 252-5392

www.theopen-daegu.co.kr **관철! 출추게 하라!**



관철 내시경·인공관절 중점병원

병원장 | 정형외과 전문의 박진욱_루카

보건복지부 지정 1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운영병원

T. 555-5520 죽전네거리 사남시장 맞은편



가톨릭피부과 의원
CATHOLIC SKIN CLINIC

57년 역사와 전통의 피부질환 전문병원

대구광역시 북구 구암로15길 28

대표전화 ☎ 053) 320-2000

WIDEX

달서점 **와이덱스 보청기**

前) 대구복음보청기 14년 지정장
덴마크 및 세계 유명 브랜드 취급
즉석 A/S, 청능사/사회복지사
류(다니엘) 053)554-0044

2호선 감삼역(서남시장) 2번 출구 앞



노인성 질환 전문요양
매일미사 봉헌, 영성치료



(재)대구구천주교회유지재단
성요셉요양병원

병원장 김명섭(그레고리오) 신부
TEL 053)615-4871

삼성화학건설

방수공사 / 페인트칠
칼라강판(지붕개량)
집수리 및 인테리어

김원(토마스) 010-5623-9001

이데오피스·문구

Canon 흑백복사기 60,000원/월
Canon 컬러복사기 90,000원/월
복사용지·문구류 무료배송

흑백복사기(A3) 중고 기증 가능
053)756-0949 대표 황현진(필립보)

순도 99.9% 순수 용융소금

고순도 소금제조법 특허 제10-1862380호

✓ 중금속 NO!
✓ 아황가스 NO!
✓ 미세플라스틱 NO!
✓ 간수 NO!

신자 할인금액 1kg ₩49,500 택배
신자 할인금액 700g ₩38,700 무료
NAVER 명품용융소금
문자주문: 010-8585-2207 이수경(서문)

† 이번 주 기억할 선종 사제

- 이형문(안토니오) 신부
2013년 8월 22일

성소 | 피정

안동교구 농은수련원 소울스테이

주제: 나를 찾는 여행

내용: 나 보듬기, 자연 안에 쉬

대상: 개인, 가족

문의: (054)652-0591 / (010)2785-0591

교육 | 모집 | 기타

가톨릭여성교육관 강좌 모집

난타·고전무용·장구, 성가반주오르간, 색소폰, 우쿨렐레, 제대꽃꽂이, 발성법, 지휘레슨, 서양화, 사범자격과정꽃꽂이, 가곡성가, 음악연습실 대여, 섬유공예, 정리수납전문가과정 / 신청: 254-6115

대구베네딕도성경학교 9월 수강생 모집

일시: 월 10:00~12:20 / 19:30~21:30
개강: 9.7(월) / 강사: 배이사악 수녀
장소: 베네딕도교육관(북구 사수동 800)
주제: 은총이 흐르는 곳(구약 심화과정)
문의: (010)7185-3431

P.C.E.(돌봄사목교육) 교육생 모집

일시: 9월~11월(12회) 10:00~13:00
매주 수, 금요일 그룹(선택)

대상: 자기돌봄에 관심 있는 분

비용: 40만원(선착순 9명)

문의: 성바오로CPE센터, (010)4143-5508

대구가톨릭대 평생교육원 수강생 모집

발성과 합창: 월, 목 14:00 / 19:00
대구CEO합창단: 화 14:00 / 19:30
장소: 대가대 평생교육원(감삼동)
문의: (010)3512-1565
정원 5명 소그룹으로 수업합니다.

2020년 재속프란치스코회 지원자 모집

대상: 만 53세 이하의 가톨릭 신자
마감: 8.22(토)
문의: (010)3440-0304

제주 성지순례 3일

일시: 8.24~26 / 9.14~16 / 9.21~23
장소: 제주성지 7곳
(신부님 성지해설)

주최: 서울대교구 가톨릭사회경제연합회
문의: (064)805-9890

2021년 양업고등학교 신입생 모집

가톨릭 유일의 대안교육 특성화 학교
아시아 최초로 좋은 학교(Q.S) 인증
일시: 9.7(월)~22(화)
모집: 전국 전 지역
문의: (043)260-5076

밀알회 후원회원 모집

“밀알 하나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남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나눔에 함께해 주세요.

문의: 422-3411(내선 1번)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사회사업후원자 모집

경제적으로 어려워 치료를 망설이는 환우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주세요.
후원: 대구은행 505-10-218514-9
문의: 650-3529

대구파티마병원 기증제대혈은행

제대혈기증은 가장 효과적이고 가치있는 사랑의 선택입니다.
문의: 959-8883 / 940-7126
<http://cord.fatima.or.kr>

채용 | 안내

교구청 경비(영선) 직원 채용

자격: 60세 이상 신체 건강한 신자
서류: 이력서, 자기소개서, 교적증명서

마감: 8.21(금) 16:00

제출: 교구청 관리과, 250-3031

2020년 대구주보 광고 추가 접수

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교적증명서, 본당 신부님 추천서
광고게재일: 12월 27일
문의: 교구 문화홍보국, 250-3048

치질수술 / 내시경(위·대장) / 건강검진

딱! 좋은 병원

늘시원한 위대항병원

병원장 의학박사 / 대장항문 세부 전문의 노성균 안우규스튜드

하마의사의 건강벨트

www.hangmuns.com 대구 북구 산격동 대우아파트 앞
T.053-959-7175 F.053-959-7577 P.010-9597-7175

곽재혁신경과

DR. KWAK'S CLINIC OF NEUROLOGY

두통 / 어지럼증 / 손발저림
치매 / 자율신경질환 / 수면장애
파킨슨 / 뇌졸중 / 도수치료

원장 | 신경과 전문의
곽재혁(발렌티노)
전 대구가톨릭대병원 조교수

053-255-2211

신남역(청라역덕역) 9번 출구 척탑병원 4층

36년 전통의 숙련된 기술

한독보청기

보조금 지원 무료 보청기

053)257-8500 / 253-7476

방인수 (프란치스코)

중앙내거리-곽병원 사이 지하도 입구

장수 효요양병원

병원장 김경열 시론

입원 대상: 뇌혈관질환, 파킨슨병, 치매, 신경계질환
노인성질환, 말기암 환자, 욕상, 수술 후 회복
장기적인 치료 요양

입원 시 필요서류
진료의뢰서 또는 의사소견서, 처방 전 결과검사지
(최초수급자: 의료급여의뢰서)

☎ 053)285-1100, 1101, 1103

작은카페

커피에디터

대구시 중구 중앙대로77길 16
(중로2가 진골목)

이 지 원(유스티나)
010-4573-1290

아트도서관

국내 첫 미술전문 도서관
도서관·갤러리·미술관·북카페
12만 여권의 도서, 수백여점 미술품 감상
(주차장 有)

관장 허두환 경일시메은 010-3588-5252
정순금 세실리아 010-6584-5252

대구연세안과

백내장/노안/라식/녹내장/황반변성

대표원장 / 의학박사
(현 연세대 외과교수) 박종원 (소시모)

안과전문 의 장주현 (비비안나)·이무일

효성병원 옆 대동M타워 4,5,6층

☎ 053)626-8881~5

은진종합건설

리모델링

보일러, 수도누수, 방수, 페인트
지붕공사, 전기누전, 막힌곳 “뽕”
정상진(그라시아노) 권순여(그라시아)

대구시 서구 영색공단로7길 13
010-3526-7401 (천주교 신자 우대)